

# “미세먼지 게 섰거라”... 생태연구로 대기오염물질 줄인다

## 서울식물원

올해부터 생태 모니터링 기반 구축  
녹지발달 따른 탄소수지·기여도 측정

서울식물원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생태연구를 추진한다.

31일 시에 따르면 서울식물원은 오는 2020년부터 식물원 내 조성된 생태환경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 탄소수지 등의 생태연구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올해 생태 모니터링 기반을 구축한다. 총 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생태연구를 통해 시는 도시공원 조성 과 운영관리에 대한 지표를 마련하고, 서울식물원이 도심과 시민에게 제공하는 사회 공헌 및 생태서비스의 가치를 추정한다.

1차년도인 올해 서울식물원은 생태



서울식물원 온실 내부.

/서울시

연구를 위한 준비에 착수한다. 조사구에 측정장비를 설치하고, 식재 식생 모니터링, 토양 분석 등을 실시한다.

2차년도인 2020년에는 식물생장량, 토양특성과 탄소 변화를 추적한다. 서

울식물원 내 열린숲, 초지원, 습지원에 서 생태환경에 따른 종 조성과 토양 호흡량 등을 측정한다.

매년 6~8월에는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통해 녹지 발달현황을 분석한다.

연차별 녹지 비율과 식생분포, 기상기후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본격적인 생태연구에 돌입하는 2020년부터는 녹지 발달에 따른 미세먼지농도, 탄소수지, 생태기여도를 측정한다.

서울식물원은 ▲식생도 작성 ▲토양 호흡 측정 ▲조성환경(식생)에 따른 이산화탄소 흡수·배출량 추정 ▲종별 엽록소 함량 및 광합성 측정 ▲토양 유기물과 미생물 분석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연구는 이상기후 대응 및 생활환경 개선과 도시공원이 제공하는 생태서비스에 대한 시민 인식 계도를 목표로 한다.

시는 도심 열섬현상 등 이상기후를 완화하기 위해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저감에 활용도 높은 수종을 선발해 식재법을 개발한다. 장기적으로 시는 도시공원을 조성해 개발로 훼손된 경관과

생태계 교란을 회복한다는 계획이다.

시민들의 환경문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시는 도시공원을 스트레스 완화, 심신 회복과 치유공간으로 활용한다.

서울식물원은 공원과 식물원이 결합된 보타닉 공원으로 총면적은 50만 4000㎡에 달한다. 축구장 70개 크기, 여의도공원 2.2배 규모와 맞먹는 대형공원이다. 열린숲, 주제원, 호수원, 습지원의 4개 공간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10월 임시개장 이후 5개월 만에 20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을 모을 만큼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생태연구로 미세먼지와 이상기후 완화 식재 식물 조성을 위한 과학적 근거 자료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추후 신설될 도시공원의 롤모델로서 식물원 고유 기능을 향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실내 툰립정원으로 꽃놀이 오세요”

31일 경기도 하남시 위례동 스타필드 시티 위례에 조성된 실내 툰립정원에서 모델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스타필드 시티 위례는 개점 100일을 맞아 오는 7일까지 에버랜드 툰립축제를 열어 툰립 1만여 송이를 매장 곳곳에 심고 SNS 인증샷 이벤트 및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 /연합뉴스

# “서울시장이 보는 정보, 이제 시민도 본다”

서울시 ‘디지털 시민시장실’ 개방  
5개 핵심시정·61개 시정지표 공개

서울시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장실에서 확인하는 서울의 모든 행정정보를 4월부터 시민에게 공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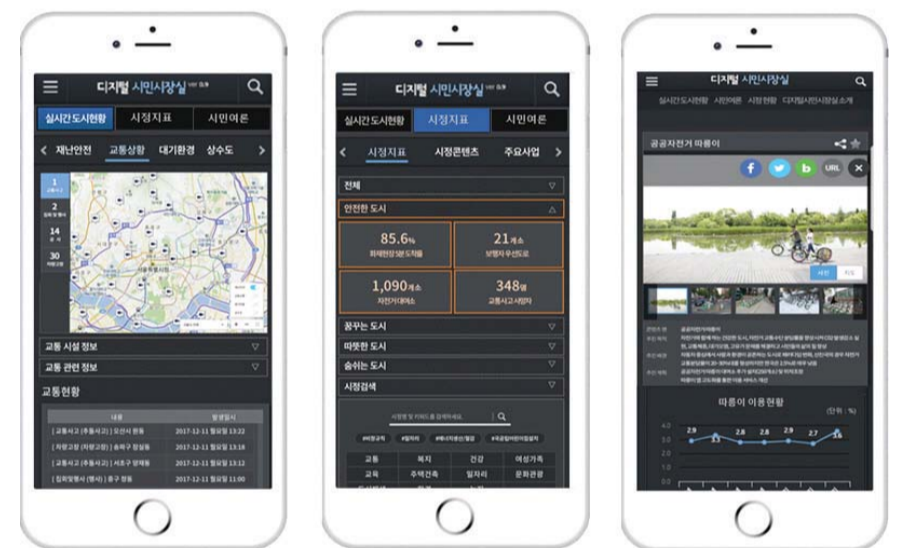
서울시는 서울의 행정정보와 ICT 기술을 접목해 만든 ‘디지털 시민시장실’을 개방한다고 31일 밝혔다.

디지털 시민시장실은 열린 데이터광장, 서울교통정보센터(TOPIS) 등 서울시 209개 시스템의 행정 빅데이터 1600만건, 시내 1200여대 CCTV 영상정보, 다산콜센터 민원창구 데이터를 디지털화해 담아낸 최첨단 시스템이다.

박시장은 매일 디지털 시민시장실을 통해 도시현황, 주요사업, 시정현황, 시민여론 등 실시간 데이터와 핵심 시정정책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오는 4월부터는 디지털 시민시장실 정보를 PC와 스마트폰, 지하철 주요 환승역 대형 스크린을 통해 시민들도 똑같이 볼 수 있게 된다.

디지털 시민시장실은 서울시 홈페이지 ‘소셜시장실’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디지털 시민시장실.

/서울시

시장이 보는 화면과 동일하게 시민안전과 직결된 재난안전, 교통상황, 대기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서울둘레길, 공공자전거 따릉이, 청년 일자리 카페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5개 핵심시정과 61개 시정지표도 공개된다.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현장 CCTV 화면과 관련 뉴스가 실시간으로 올라와 시민도 함께 발 빠르게 대처하고 대응 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여의도역·홍대입구역·창동역 3개 환승

역에 100인치 대형스크린으로 된 ‘디지털 시민시장실’이 설치된다. 화면을 터치하면 대중교통 도착시간, 미세먼지 농도, 둘레길·공원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박원순 시장은 “디지털 시민시장실은 전자정부 세계1위 도시 서울의 스마트 기술을 집약한 혁신적인 시스템이자 시민이 시장인 서울시정 철학을 고스란히 담은 결과물”이라며 “디지털 시민시장실을 개방해 시민과 함께 정보를 채워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 경기도, 행사·정책 “수어로도 안내 받아”

실질적 직원 대상 수어교육 이뤄져  
내년 민원업무 담당자 교육 확대 검토

경기도가 수어 문화 확산을 위한 의미 있는 행보를 보이고 있어 화제다.

31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수어통역사 배치’와 ‘찾아가는 수어교육’ 등 2가지 사업에 착수했다.

1년여 간의 수어교육원 운영을 시도한 경기도는 교육만으로는 수어확산이 쉽지 않다고 보고 올해 1월부터 전국 최초로 공개회이나 중요 정책 발표 등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행사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고 있다. 통역사의 수어통역은 중계방송을 통해 시청자에게 전달된다.

이 아이디어는 신동진 한국농아인협회 경기지회장의 제안을 도가 정책으로 채택한 것이다. 신 회장은 지난해 수어발전 정책 간담회에서 “농인들도 경기도의 주요 정책을 알 수 있도록 각 행사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현재까지는 지난 12일 인터넷 생방송으로 중계된 ‘1P가스 안전지킴이 업무협약식’ 등 3개 행사에 수어통역사가 합



경기도 수어교육 현장.

/경기도

개 했다. 도는 수어통역사 배치를 원하는 공공기관 행사가 늘고 있는 만큼 시간이 지나면 더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는 공공기관 행사에만 통역사를 지원할 예정이지만 앞으로는 민간행사에도 통역사를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을 받은 경기도청 직원 A씨는 “수어를 배운 후 TV에 나오는 수어통역사도 유심히 보게 되고 사무실에서도 동료들과 수어로 대화하기도 한다”면서 “가장 큰 변화는 수어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진 것으로 지금은 실제 농인을 만나도 친숙하게 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도는 올해 모든 실국장이 수어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

##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시민 의견 담는다... 10일 공청회

누구나 별도 신청없이 참석 가능

서울시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시민의견을 담는다.

서울시는 10일 오후 2~5시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발전방향’을 주제로 공청회를 연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설명하고 각계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발표하고 6개 경전철 노선, 2개 기존선 개량, 2개 네트워크 강화 노선

계획과 설계원칙을 설명한 바 있다.

공청회는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의 개회사로 문을 연다. 서울연구원 윤혁렬 선임연구위원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발표가 이어진다. 이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와 대한교통학회 학회장을 맡고 있는 김시곤 교수가 좌장으로 나서 60분간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이 끝나면 40분간 방청객 의견 발표 시간이 주어진다. 질의사항에 대해 서울시와 서울연구원 관계자가 답변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번 공청회는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관심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신청 없이 참석할 수 있다.

서울시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주민설명회, 지역구 등 관계부서 의견 조화 결과를 담아 최종 구축계획안을 4월 말 국토부에 정식 승인 요청할 계획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공청회가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관심 있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서울시 도시철도망의 발전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유의미한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며 “시민과 전문가, 관계자 등과 소통을 위해 마련한 자리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